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문제행동에 대한 구조모형분석*

한 지 현¹⁾ 나 은 영²⁾ 이 진 숙³⁾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문제 행동에 이르는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들 경로의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J, I시에 거주하는 만 3~5세의 유아 342명과 그들의 어머니, 담임교사이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측정하였으며,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교사가 측정하였고, 유아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와 교사가 각각 평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기능적 정서조절,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교사가 보고한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하여 유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 감소 및 정서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적 개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

* 본 논문은 나은영(2017)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자료를 활용함.

1)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2)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3) 교신저자 :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E-mail: jslee0820@jbnu.ac.kr)

I. 서론

유아기는 신체·인지·사회·정서적으로 성장, 발달하면서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정서 조절능력을 발달시키며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달시키는 시기이다. 그러나 여러 보고에 따르면 유아기에 적절한 발달과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며 불안이나 우울,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연, 2007; 이숙희, 고인숙, 김미정, 2009; Campbell, 2002). 유아기 문제행동을 방지할 경우 유아의 심리적 안녕과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후의 정상적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대처, 예방이 필요하다.

유아기 문제행동의 조기개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유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유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부모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주양육자로서 기능하는 어머니의 경우 가정내에서 관찰되는 유아의 행동특성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보고가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었고(김경숙, 1993), 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그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교사이며 교사는 여러 유아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고(Firmin, Proemmel, &

Hwang, 2005), 집단 내에서의 유아의 행동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하지만 교사평가가 부모평가에 비해 정확성이 더 떨어질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는데(Green, Beck, Forehand, & Vosk, 1980)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아를 구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여러 가지 문제를 유형별로 감별해 내는 측면에서는 교사평가가 부모평가에 비해 더 정확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 부모와 교사의 평가 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 부모와 교사 평가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상관관계수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 일치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강명희, 2000; 송수미, 김재환, 2002; A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Cai, Kaiser, & Hancock, 2004; Verhulst & Akkerhuis, 1989).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을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내재화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가 더 일치했으며(Cai et al., 2004; Verhulst & Akkerhuis, 1989) 어머니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행동이 아버지와 교사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행동의 예측요인임이 밝혀진 연구결과(Grietens et al., 2004)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유아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유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인들에 의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부모나 교사의 어느 한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두 평가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 자료를 모두 활용하고

자 하며, 특히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같은 내용 차원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며 신뢰로운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한편,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유아 개인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개인변인 중 정서조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정서조절이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서를 표출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여 바람직한 정서표현을 유지하는 과정으로 (Thompson, 1994) 유아가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원만한 또래관계뿐 아니라 행동문제를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컨대 정서를 잘 조절하는 유아는 또래유능성이 높고(김은경, 2006; 최인숙, 2014) 문제행동도 덜 나타내는 반면(Valiente et al., 2006),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유아는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보미, 2015; 권연희, 2011; 김은경, 2013; 최정은, 2016; Rydell, Berlin, & Bohlin, 2003). 이처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므로 이들 관계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을 탐색하여 정서조절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개입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가정환경변인으로는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머니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머니가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들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정서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서표현이란 언어적, 비

언어적으로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유아의 정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아에게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한 정서의 표현방식을 알려주는 것은 유아의 정서·사회적 적응에 필수적인 기제이다(이윤정, 2013). 가정 내에서의 긍정적인 정서환경은 자녀의 정서에 대한 지식, 긍정적인 감정 및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정서환경은 정서에 대한 지식이나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Denham, Zoller, & Couchoud, 1994; Dunn, Brown, & Beardsall, 1991).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련연구를 보면,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적게 하고 부정적 정서표현을 자주 하는 경우 공격적 행동과 우울·불안·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청, 이효림, 정정희, 2015; 박찬경, 2013; 이윤정, 2013).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민정임, 한세영, 2012)도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유아의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은 핵심적인 요인임이 보고되어 왔다(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특히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Halberstadt, Crisp,

& Eaton, 1999). 관련연구에 의하면,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 자녀는 타인의 정서반응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반면(김청 등, 2015; Dunsmore & Halberstadt, 1997; Eisenberg et al., 2003),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 자녀도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낮은 정서조절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성, 2011; 여은진, 2009; Ramsden & Hubbard, 2002).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유아의 정서조절 및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정서조절은 모의 정서표현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다루거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일차적인 영향요인으로써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세 변인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드문 편인데,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중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유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도적 통제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et al., 2001; Eisenberg et al., 2003; Valiente et al., 2006). 국내에서는 연구결과에 차이를 보이는데, 유아의 정서조절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숙령, 고윤희, 2009). 반면에,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서선옥, 2016)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선행연구가 부족하며 그 연구결과 또한 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단일차원이 아닌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부정적인 정서표현의 이차원적인 요소인데, 이들 요인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서로 상반되는 일차원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이 있다. 부모가 긍정적 정서를 자주 표현하는 경우 자녀도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반면, 부모가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경우 자녀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나타냈다는 보고되고 있다(이한애, 송하나, 2008; 이해련, 최보가, 2005).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그 표현 양상에 따라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하고 이들 요인을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통해 문제 행동에 이르는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들 경로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들 경로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경로를 찾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을 어머니와 교사가 각각 평정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유아를 보다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제행동별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표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모형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J, I시에 거주하는 만 3~5세의 유아 342명과 그들의 어머니, 담임교사이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성별은 남아 167명(48.8%), 여아 175명(51.2%)이며, 연령별 구성은 만 3세 78명(22.8%), 만 4세 89명(26%), 만 5세 175(51.2%)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20~34세 126명(36.8%), 35~40세 178명(52%), 41~45세 38명(11.1%)으로 35~40세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취업모가 192명(56.1%), 비취업모가 150명(43.9%)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 172명(50.3%)이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 103명(30.1%), 고등학교 졸업 47명(13.7%), 대학원 이상 20명(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342)

변인	구분	빈도(%)
유아	성별	남 167(48.8)
		여 175(51.2)
	연령	만 3세 78(22.8)
		만 4세 89(26.0)
		만 5세 175(51.2)
	연령	20~34세 126(36.8)
		35~40세 178(52.0)
		41~45세 38(11.1)
어머니	취업	취업모 192(56.1)
	여부	비취업모 150(43.9)
	학력	고졸이하 47(13.7)
		전문대졸 103(30.1)
		대학교졸 172(50.3)
		대학원 이상 20(5.8)

2. 측정도구

어머니의 정서표현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와 Fox(1995)가 개발한 정서표현 척도(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 SEFQ)의 간편형인 Short Form of the SEFQ를 여은진(200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한다. SEFQ는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표현에 초점을 둔 척도로서, 긍정적 정서표현(11문항)과 부정적 정서표현(13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나 최종분석에서는 의미가 불분명한 2문항을 제외하고 총 22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는 긍정적 정서표현(10문항)은 Cronbach's $\alpha = .87$ 이고 부정적 정서표현(12문항)은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icchetti (1997)의 정서조절척도(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김지윤(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서 불안정성, 정서의 유연성 및 표현의 적절성 등 정서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교사용 척도이다. 하위요인은 기능적 정서조절(8문항)과 역기능적 정서조절(15문항)로써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는 기능적 정서조절은 Cronbach's $\alpha = .74$,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은 부모보고용과 교사보고용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가정에서 유아가 나타내는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서 보이는 유아의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부모보고용은 Achenbach(1991)의 아동문제행동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하은혜, 오경자, 이해련과 홍강의(1995)가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를 이찬숙(2008)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교사보고용은 Achenbach와 Rescorla (2000)가 개정하고 오경자와 김영아(2010)가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표준화 한 유아행동 평가 척도 교사용(Caregiver-Teacher Report Form, C-TRF)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로 구성되어있는데, 대표적인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우울/불안, 위축(부모보고용 16문항, 교사보고용 20문항)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공격성, 주의집중문제(부모보고용 19문항, 교사보고용 20문항)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0, 1, 2의 3점 리커트 척도이며, 영역별 신뢰도는 부모보고용은 Cronbach's $\alpha = .74$, 92이었으며 교사보고용은 Cronbach's $\alpha = .86$, 9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조사는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J, I시 소재 5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세~5세 유아 450명의 어머니와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에 동의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동의서와 질문지를 가정통신문과 함께 가정으로 배부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는 연구동의서와 질문지를 작성한 후 동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한 다음 유아 편에 담임교사에게 보내도록 안내받았다. 담임교사는 질문지와 동의서를 가져온 유아에 한해 연구동의서와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총 4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364부(80.9%)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34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과 모든 연구절차는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File No. JBNU 2016-09-011-003).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와 연구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 및 문제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모델에 기초하여 경로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20.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정서표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어머니의 정서표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의 기술통계

어머니의 정서표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문제행동의 전반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에서는 긍정적 정서표현($M = 3.93$, $SD = 0.58$)이 부정적 정서표현($M = 2.36$, $SD = 0.53$) 보다 높았으며, 유아의 정서조절에서도 기능적 정서조절($M = 2.58$, $SD = 0.42$)이 역기능적 정서조절($M = 1.94$, $SD = 0.49$)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응답범위가 1~3점임을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인들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임계비에 대한 기준(West, Finch, & Curran, 1995)인 왜도 ± 2 , 첨도 ± 7 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아 정상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

표 2. 어머니의 정서표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의 기술통계치 ($N = 342$)

변 인			$M(SD)$	왜도	첨도
어머니의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표현		3.93(0.58)	-0.38	-0.37
	부정적 정서표현		2.36(0.53)	0.13	0.2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기능적 정서조절		2.85(0.42)	-0.22	0.74
	역기능적 정서조절		1.94(0.49)	0.39	-0.21
유아의 문제행동	내재화	모보고	1.35(0.28)	0.89	0.24
	문제행동	교사보고	1.34(0.28)	0.82	-0.02
	외현화	모보고	1.39(0.35)	1.16	1.39
	문제행동	교사보고	1.39(0.40)	1.16	0.80

표 3. 어머니의 정서표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N = 342)

변인	1	2	3	4	5	6	7
1. 긍정적정서표현	1						
2. 부정적정서표현	-.26***	1					
3. 기능적정서조절	.15**	-.17**	1				
4. 역기능적정서조절	-.21***	.36***	-.41***	1			
5. 내재화문제행동(모보고)	-.18**	.40***	-.20***	.35***	1		
6. 내재화문제행동(교사보고)	-.08	.18**	-.39***	.43***	.46***	1	
7. 외현화문제행동(모보고)	-.16**	.45***	-.23***	.51***	.67***	.28***	1
8. 외현화문제행동(교사보고)	-.10	.28***	-.42***	.73***	.32***	.64***	.36***

* $p < .05$. ** $p < .01$. *** $p < .001$.

였다. 유아의 문제행동의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표현과 기능적 정서조절, 부정적 정서표현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15~.41사이로 나타났으며 VIF(분산팽창계수)값이 1.09~1.35(10 이하), TOL(공선성 허용도)은 .74~.91(0.1 이상)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과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표현과 기능적 정서조절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며, 부정적 정서표현과 역기능적 정서조절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표현과 교사가 보고한 유아의 문제행동을 제외하고 각 변수들 간에는 .16~.73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한편,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교사가 보고한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에서 내재화문제행동 간($r = .46, p < .001$)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r = .64, p < .001$)에는

중간정도의 상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 및 문제행동에 대한 구조모형분석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사용되는 관측변인들의 구성을 위해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실시하였는데, 유아의 정서조절과 문제행동은 각 척도의 하위변수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합쳐서 기능적 정서조절, 역기능적 정서조절, 내재화문제행동, 외현화문제행동의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문제행동의 경우 어머니와 교사가 측정한 점수들을 각각의 관측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의 경우 잠재변수를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설정하고 관측변인을 구성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을 실

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을 삭제하고 항목목록기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각 잠재변수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는데,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최소 2개 이상의 측정변수가 필요하므로 문항들을 무선적으로 배분하여 합산함으로써 2개의 측정변수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긍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긍정적 정서요인1(3문항), 긍정적 정서요인2(3문항)로 부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부정적 정서요인1(4문항), 부정적 정서요인2(3문항)의 측정변수를 만들었다.

이러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를 활용하여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모형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모

든 경로를 포함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설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hi^2/df = 3.888$, $TLI = .913$, $CFI = .957$ 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RMSEA = .092$ 로 다소 높게 나타나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외생변수의 오차항(긍정요인2와 부정요인2의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를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또한 경로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경로는 제외한 수정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는 $\chi^2/df = 3.110$, $TLI = .937$, $CFI = .966$, $RMSEA = .079$ 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을 연구모형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과 표 5에 제시된 표

표 4.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342)

적합도지수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가설모형	54.430	14	.000	3.888	.913	.957	.092
수정모형	46.651	15	.000	3.110	.937	.966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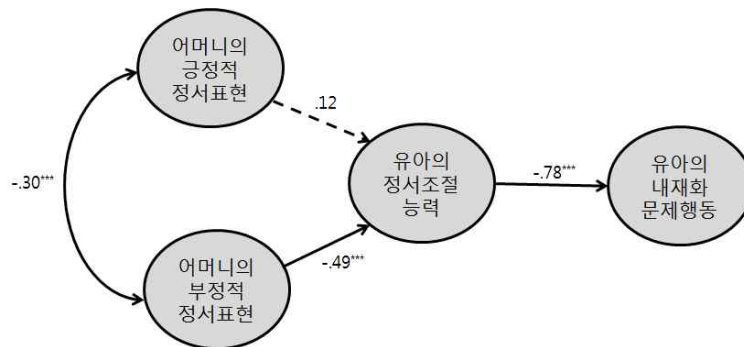


그림 1.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 $p < .001$.

표 5.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342)

경로		B	β	S.E.	C.R.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06	.12	.03	1.86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18	-.49	.03	-5.69***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 유아의 내재화문제행동	-.62	-.78	.10	-6.36***

*** $p < .001$.

준화계수와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r = -.30, p < .00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beta = .12, p = .06$)에 통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49, p < .00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78, p < .001$).

어머니의 정서표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에 유의한 경로가 발견됨에 따라 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두 개의 경로는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 = -.10, p < .05$)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표 6.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N = 342)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β	하한	상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정서조절	→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10*	-.08	-.001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정서조절	→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38**	.07	.17

* $p < .05$. ** $p < .01$.

의 간접효과($\beta = .38, p < .01$)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모형의 적합도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가설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chi^2/df = 4.675$, $TLI = .915$, $CFI = .958$ 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RMSEA = .104$ 로 다소 높게 나타나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외생변수의 오차항(공정요인2와 부정요인2의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를 연결하여 모델을 수정하였다. 또한 유의한 경로를 살펴보면 또한 경로를 살펴보면, 외현화 문제행동 구조모

형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경로는 제외한 수정모형을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수정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hi^2/df = 4.468$, $TLI = .928$, $CFI = .964$, $RMSEA = .096$ 으로 $RMSEA$ 의 적합도가 보통 수준이나 본 연구의 목적이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간의 비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정모델도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 수정하지 않고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수정모형을 연구모형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와 표 8에 제시된 표준화계수와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r = -.31, p < .001$),

표 7.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342$)

적합도지수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가설모형	65.446	14	.000	4.675	.915	.958	.104
수정모형	67.021	15	.000	4.468	.928	.964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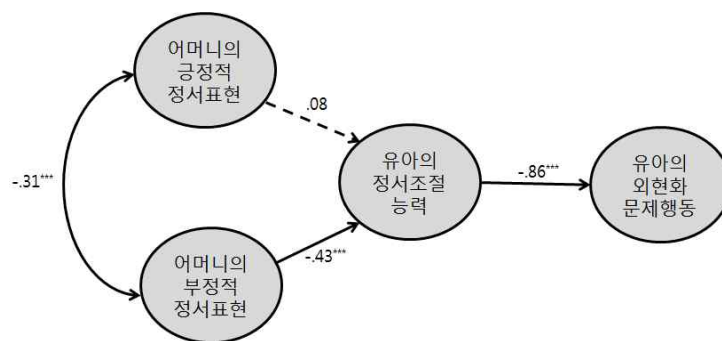


그림 2.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 $p < .001$.

표 8.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342)

경로		B	β	S.E.	C.R.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02	.08	.02	1.25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15	-.43	.03	-5.4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 유아의 외현화문제행동	-1.02	-.86	.14	-7.30***

*** $p < .00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beta = .08, p = .2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43, p < .00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86, p < .001$).

어머니의 정서표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 유의한 경로가 발견됨에 따라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긍정

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매개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beta = -.07, p = .27$)는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의 경로($\beta = .37, p < .01$)는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N = 342)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β	하한	상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정서조절	→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07	-.08	.02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정서조절	→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37**	.09	.21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문제행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모의 정서표현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에 관련성이 있었는데, 긍정적 정서표현과 기능적 정서조절, 부정적 정서표현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의 정서조절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의 정도가 높으면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낮게 나타난 연구들(김청 등, 2015; 백미애, 2002; 박혜성, 2011; 여은진, 2009; Eisenberg et al., 2001)과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 자녀는 감정이입을 잘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Eisenberg & McNally, 1993)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 수준이 높은 집단의 유아들은 두려움과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고, 슬픔과 분노를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이혜련, 최보가, 2005)와도 맥을 같이한다. 즉,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유아가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정서조절이 기능적이며,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유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어머니와 교사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들 변인 간에 상관이 나타났다. 변인 간에 보통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교사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교사가 보고한 유아의 문제행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Verhulst & Akkerhuis, 1989)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계수($r = .46, p < .001$)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상관계수($r = .64, p < .001$)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내재화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가 더 일치했으며(Cai et al., 2004; Verhulst & Akkerhuis, 1989) 어머니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행동이 아버지와 교사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행동의 중요한 예측요인임이 밝혀진 선행연구(Grietens et al., 2004)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적절하여 관련성을 포함하면서도 다양한 관찰자에 의해 평가되는 개별적인 관점을 포함시킴으로써 유아의 행동문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셋째,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

현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었으며,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거나 정서표현성이 낮은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표현을 억압하면 유아가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되어 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우수경, 정영숙, 2003)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이 있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Cumberland-Li, Eisenberg, Champion, Gershoff, & Fabes, 2003)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효과크기를 비교해 보면 긍정적 정서표현의 간접효과가 부정적 정서표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긍정적인 정서표현보다 유아의 과잉행동산만, 적대공격성, 걱정불안과 같은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숙령, 고윤희, 2008)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넷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관련된 변인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확인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정서조절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Ramsden & Hubbard, 2002)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Eisenberg et al., 2001)를 지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검증된 최종모형에 따르면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선행연구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의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서선옥, 2016), 유아의 정서조절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숙령, 고윤희, 2008)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수용태도의 척도 차이(서선옥, 2016)와 부정적 정서표현과 긍정적 정서표현을 별도의 모형으로 하여 분석을 한 연구모형의 차이(김숙령, 고윤희, 2008)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을 각각의 경로로 설정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비해 부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정서조절이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내재화·외현화 문

제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은 서로 독립적이며, 부정적 정서표현을 과도하게 표현할 경우 정서장애 혹은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Kring, Smith, & Neale, 1994)와 맥을 같이 한다. 평소 가족의 실수나 문제를 비난하고 격하게 화를 내는 것과 같은 부정적 감정표현을 많이 드러낼 경우, 자녀는 심리적인 불안과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감정조절능력이 취약해지고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취해야할 바람직한 정서표현 태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에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정서조절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시키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이나 상담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유아기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유아기의 문제행동이 추후 아동기, 청소년기로의 전이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 경로를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유아기와 학령기의 발달경과에 따른 문제행동 경로를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교사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문제행동의 점수가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추후 일반 유아와 임상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 경로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구분하여 이들 변인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가정하고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명희 (2000).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아동, 교사 평가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보미 (2015). 어머니의 자녀정서신념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희 (2011).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5), 927-940.
- 김경숙 (1993). 유아의 행동문제와 어머니 양육태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령, 고윤희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교사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정서조절력, 문제행동간의 구조모형분석. 유아교육연구, 29(6), 45-65.

- 김 연 (2007). 유아 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6). 부모의 정서표현수용태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2007). 유아의 기질 및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청, 이효림, 정정희 (2015).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유아 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아동교육, 24(2), 123-144.
- 나은영 (2017).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정서표현양가성, 유아의 정서조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정임, 한세영 (2012).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117-137.
-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유아의 성, 기질, 가정의 월수입,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359-382.
- 박찬경 (2013).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성 (2011).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미애 (2002). 부모의 정서표현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감정조절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선옥 (2016).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정서조절능력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수미, 김재환 (2002). ADHD 및 우울/불안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교사간 평정 일치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59-869.
- 여은진 (2009). 유아와 어머니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조절간의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자, 김영아 (2010). 유아행동평가척도 교사용 C-TRF. 서울: (주) 휴노.
- 우수경, 정영숙 (2003).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총, 7(1), 99-119.
- 이숙희, 고인숙, 김미정 (2009).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3(1), 163-183.
- 이윤정 (2013).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찬숙 (2008).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가정 환경 및 지역사회 변인

-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한애, 송하나 (2008). 어머니와 교사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205-223.
- 이혜련, 최보가 (2005). 유아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5), 1-14.
- 최인숙 (2014). 유아의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 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6), 47-58.
- 최정은 (2016).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은혜,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1995). 한국판 CBCL의 문제 행동 증후군 지도 재구성을 위한 연구. *정신의학*, 20(1), 45-52.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McConaughy, S. H., & Howell, C. T.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2), 213-232.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An integrated system of multi-informant assessment*. Burlington, VT: Achenbach System of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 Cai, X., Kaiser, A. P., & Hancock, T. B. (2004). Parent and teacher agreement on Child Behavior Checklist Items in a sample of preschoolers from low-income and predominantl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2), 303-312.
- Campbell, S. B. (2007). 유아의 문제행동. 민성혜(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 발간일, 2002)
- Cumberland-Li, A., Eisenberg, N., Champion, C., Gershoff, E., & Fabes, R. A. (2003). The relation of parental emotionality and related dispositional traits to parental expression of emotion and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Motivation and Emotion*, 27(1), 27-56.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 Dunsmore, J. C., & Halberstadt, A. G. (1997). How does the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ffect children's schema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97(77), 45-68.
- Eisenberg, N., Gershoff, E. T.,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J., Losoya, S. H., Guthrie, I. K., & Murphy, B. C. (2001).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 behavior problems and social competence: Mediation through children's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475-490.
- Eisenberg, N., & McNally, S. (1993). Socialization and mothers' and adolescents' empathy-related characteristic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2), 171-191.
- Eisenberg, N., Valiente, C., Morris, A. S., Fabes, R. A., Cumberland, A., Reiser, M., Gershoff, E. T., Shepard, S. A., & Losoya, S. (2003).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children's regulation, and quality of socioemo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3-19.
- Firmin, M. W., Proemmel, E., & Hwang, C.-E. (2005). A comparison of parent and teacher ratings of children's behaviors. *Educational Research Quarterly*, 29(2), 18-28.
- Green, K. D., Beck, S. J., Forehand, R., & Vosk, B. (1980). Validity of teacher nomina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3), 397-404.
- Grietens, H., Onghena, P., Prinzie, P., Gadeyne, E., Van Assche, V., Ghesquière, P., & Hellinckx, W. (2004). Comparison of mothers', fathers', and teachers' reports on problem behavior in 5- to 6-year-old childre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2), 137-146.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alberstadt, A. G., Crisp, V. W., & Eaton, K. L. (1999). Family expressiveness: A retrospective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In P. Philippot, R. S. Feldman, & E. J. Coats (Eds.), *The social context of nonverbal behavior* (pp. 109-15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5), 934-949.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Ramsden, S. R., & Hubbard, J. A. (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Their role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6), 657-667.
- Rydell, A. M., Berlin, L., & Bohlin, G. (2003).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adaptation among 5- to 8-year-old children. *Emotion*, 3(1), 30-47.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 Valiente, C., Eisenberg, N., Spinrad, T. L., Reiser, M., Cumberland, A., Losoya, S. H., & Liew, J. (2006). Relations among mothers' expressivity,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their problem behaviors: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Emotion*, 6(3), 459-472.
 - Verhulst, F. C., & Akkerhuis, G. W. (1989). Agreement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ratings of behavioral/emotional problems of children aged 4-12.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1), 123-136.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 1 차원고접수 : 2018. 07. 12.
수정원고접수 : 2018. 11. 18.
최종게재결정 : 2018. 11. 29.

Mothers'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Problematic Behaviors: A Structural Model Analysis

Han, Jihyeon

Na, Eunyeong

Lee, Jin Suk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mother's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and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on infa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We try to establish a structural model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ons that leads to problematic behaviors through emotional regulation of preschoolers an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se paths. The participants were teachers, mothers and 342 preschoolers between the ages 3-5 in South Korea. Mothers'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problematic behavior were ra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and preschoolers' functional emotional regulation, and between mother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and preschoolers' dysfunctional emotional regulation. Mother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affected preschooler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through mediation of the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f preschoolers. The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f preschoolers was found to be completely medi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intervention in order to reduce problem behaviors and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f preschoolers.

Keywords : mothers'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preschooler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atic behaviors